제과업계를 뜨겁게 달군

'98 베이커리 Hot 뉴스

● 매출 부진 · 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

사상 초유의 매출 부진과 원가 부담 가중으로 베이커리 업계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초 원 · 부재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과점들이 지난 1월 25% 가량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나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매출 부진을 초래했다. 또한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할인점이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20% 가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제과점들은 상대적으로 매출 부진이 가중됐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구조 조정, 임금 삭감, 정리 해고,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위축된데다 여름 비수기와 윤달로 인한 케이크 판매 저조로 다시 매출이 20% 가량 떨어졌다. 또한 프랜차이즈업체를 비롯한 자영 제과점의 가격 할인 확산으로 매출 회복기라는 9월부터 연말이 다 되도록 매출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올 한해 베이커리 업계를 강타한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40~60% 가량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원 · 부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은 베이커리 업계가 겪은 이중고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가파르게 상승한 환율로 인해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던 제과 재료 가격은 60~80%까지 급등했었다. 또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부 재료상 및 제과점의 사재기와 재료 업체의 공급량 조절 등으로 밀가루, 설탕 등 일부 재료는 한때 수급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현재 1,300~1,400원대로 환율이 안정돼 원 · 부재료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했으나 사상 초유의 재료 가격 상승은 제과점 경영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 가격 할인 확산, 업계 공멸 우려

가격 할인 여파는 매출 부진과 함께 올해 베이커리 업계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 가격 할인은 지난 1월 단행한 가격 인상의 여파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자 다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됐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30% 가격을 낮춘 즉석 할인 매장이 등장했고 3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하에 자극받은 나머지 업체들이 4월 들어 본격 가세하면서 자영제과점의 가격 할인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사의 창립 기념일을 통한 가격 할인 행사는 물론, 가격 할인은 아니지만 덤 제공이나 경품 증정 등의 각종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영 제과점까지 가격 할인에 나서 현재 전국적으로까지 확산된 상태이다.

한편 지난 11월 대한제과협회의 주도 아래 5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창립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 내년부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 베이커리 업계 구조조정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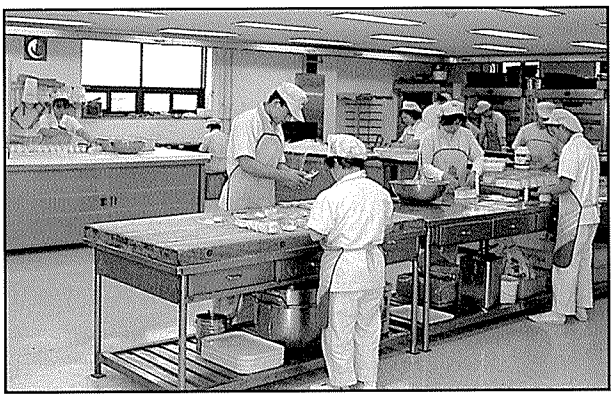
환율폭등에 따라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예고되면서 자영제과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올들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자영제과점은 올초 원 · 부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몇년째 계속돼온 매출 부진이 더욱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기술인 축소, 대체재료 사용, 원가절감 등의 자구 노력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기술인 취업난이 현실화되어 전

흔히 한해를 정리하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고 하지만 올해처럼 변화가 많았던 해도 없을 것이다.
사상 최고라는 극심한 매출 부진과 가격 할인 파동 등 거센 태풍이 업계에 휘몰아쳤기 때문이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98년 한해 굵직했던 사건을 모아 베이커리 핫(Hot)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국적으로 생산인력 축소 바람이 불었다. 자영제과점의 정리해고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고임금, 공장장급 기술인들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인들이 올 들어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감수해야 했으며, 취업난 또한 매우 심각해 아예 제과업을 떠나버린 기술인들도 적지 않았다. 또한 심각한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폐업점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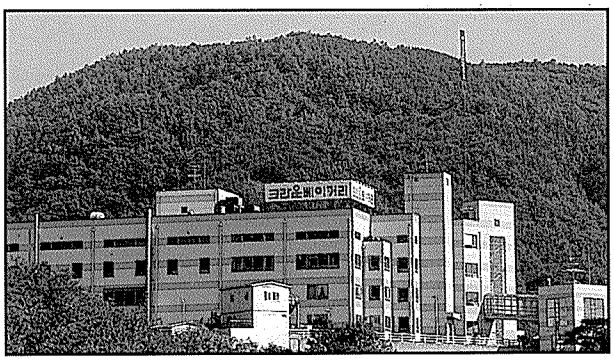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업체들 역시 환율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다 매출 하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내실경영에 역점을 두고 한해를 보냈다. 조직 축소, 물류비 절감, 광고비 억제, 부실점포 정리, 사업 재평가 작업 등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회사 운영상의 군살빼기로 자구책을 모색한 것이다. 각 업체들이 평균 20~30%의 인력을 감원하는 한편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브랜드 전략 등을 철회한 것은 모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 베이커리업체 부도로 위기감 팽배

크라운 베이커리(대표 윤영달)가 무리한 사업확장 및 설비투자의 휴우증과 IMF이후 외환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익 구조 악화,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계열사인 크라운 제과와 함께 올초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고려당(대표 김지정)도 매출감소와 무리한 사업 다각화, 유통 거래선의 잇따른 부도로 미수금이 누적돼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화의를 신청했으며 기린(대표 이학기)의 경우는 계열사인 기린산업의 지급보증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화의를 신청한 후 인원 감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보유 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 마련을 통해 경



영정상화를 추진해 6월에 크라운 베이커리가 화의 개시 인가를 받은데 이어 9월에는 기린, 10월에는 고려당이 각각 화의 개시 인가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큰나무로 인수되기 전 경영자가 사적(私的)으로 발행한 어음 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3월말 부도처리 된 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난항을 겪어온 바로방(대표 정종득)은 9월말 큰나무파이낸스가 퇴출되면서 11월 중순 최종적으로 베이커리 사업 포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인 이상 제과점, 고용보험 의무가입

올 10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제과점들도 내년 3월까지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무가입 사항이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3개 부분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연체료 외에 300만원 가량의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고용안정과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입이 시행된 98년 10월부터 소급적용되어 고용보험가입시 그 동안의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이직)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 동안 퇴직(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한편 보

험료율은 현재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0.3%, 사업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99년부터 근로자 0.5%, 사업자 0.9%로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과제빵 열기 제과학원 신설 붐

IMF 이후 제과학원에 수강생이 몰려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거나 학원개원이 급증하는 등 때아닌 호황기를 맞았다. 이러한 현상은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 가운데 제과점 창업을 위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데다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 고학력자 가운데서도 제과기술을 배워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파리크라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원 수강생은 약 3,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 증가했으며 명예퇴직 후 창업을 위해 수강하는 수강생이 지난해 1% 미만에서 올해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의 경우 수강생의 70%가 대졸자 및 휴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과제빵 수강열기 확산으로 올해 들어 제과학원 신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의 제과학원은 지난해 38개보다 무려 29개가 늘어난 67개로 약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과점 영업 규제 완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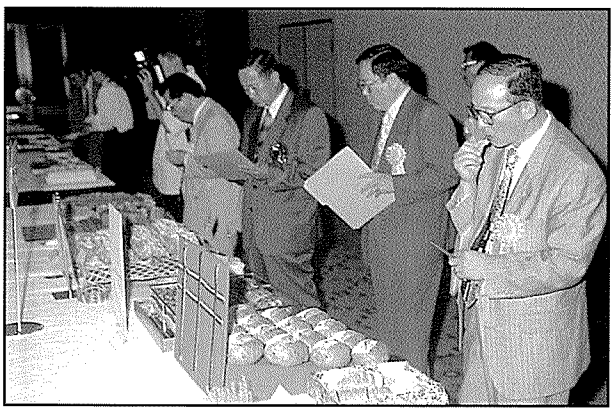
올해 들어 제과점 영업과 관련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생활의 편의와 관련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몇몇 사항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한편 영업 활동의 제한 요소도 완화돼 일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과점 종사자의 보건증 갱신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빵 업체의 제품 유통 기한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제과점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내년부터는 제과점의 영업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며 제과점 종사자의 보건증 휴대 의무도 폐지된다. 또 시설 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점포 사정으로 휴업할 때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울러 20평 미만의 점포는 영업 허가 신청시 '시설 배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 완화 조치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정화조 용량은 반드시 이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 주의가 요구된다.

● 호두 경연 · 하이박 성황리 개최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개최된 '98 호두제품 경연대회와 '98 하이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98 호두제품 경연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10명이 증가한 187명이 참가를 신청, 예선을 거친 3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수상작품의 상품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상금의 2/3를 입상제품의 판촉행사를 실시한 업주에게 지급했다. 올해는 제품의 맛을 고려해 호두양을 적절히 사용한 제품이 늘어났으며 호두의 사용방법 또한 다양해져 전반적으로 제품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지난 10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된 '98 하이박은 경연부문이 3개로 축소되어 총 176명이 경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회부터 '1품목, 1배합, 1모양'이라는 새로운 대회 규정이 추가돼 심사과정의 객관성은 물론 전반적인 제품 수준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재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제품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독창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